

2020년 5월 26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식생활소비급실진흥과 과 장 신우식(044-201-2271), 사무관 김남주(2285) / 제공일: 5월 26일(총 3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전국 로컬푸드 직매장 전수점검 등 관리 강화!

[연합뉴스 5.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- 해당 직매장에 대하여 aT, 전북도청 등이 현장 확인(5.7) 후 공판장에서 납품받은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
 - 재발방지를 위하여 농식품부, 지자체, aT 등이 협업하여 오는 7월까지 전국 로컬푸드직매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 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
- 5월 26일 연합뉴스 <못믿을 로컬푸드... 전주농협 매장 4곳 중 3곳 '가짜' 팔다가 적발>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

언론 보도내용

- 전북 전주농협이 지역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위해 설치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로컬푸드가 아닌 일반농산물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남
- 전주농협은 이같은 취급품목 위반행위가 확인돼 관리책임이 있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로부터 주의 처분 받음

- 전주농협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해 온 농업인은 “일반 농산물을 마치 로컬푸드인 것처럼 판매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.”고 지적

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-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와 전북도청 등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(5.7)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에서 지역농산물·직거래 농산물이 아닌 공판장에서 납품받은 농산물을 판매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
 - 다만, 직매장 내 로컬푸드가 부족한 경우 일반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한 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. (사진 참고)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내에서 공판장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정부 지원 ‘직매장 사후관리지침’, ‘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지침’과 맞지 않아 공판장 농산물을 팔지 못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.
- 농식품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 - 오는 7월까지 농식품부, 지자체, aT 등이 협업하여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
 -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정부지원 직매장은 삼진아웃(1차 ‘주의’, 2차 ‘경고’, 3차 ‘보조금 환수’)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.

